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관계고찰

윤성태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형사과장(경정)

나. 아메리카주

미주 대륙은 중남미의 생산국과 북미의 수요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최대의 수요국과 최대의 생산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미주 대륙의 마약관련 문제는 국가간의 분쟁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며 어느 한쪽도 이익을 볼 수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임을 당사국들도 인식하고 있다.

최근의 유엔마약위원회 회의에서 볼리비아와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등의 남미 국가들이 마약문제가 특히 취약국가의 경제,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인 개발을 저해함을 강조하며 생산국과 소비국이라는 단순한 구별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해 책임을 공유하는 국제적 해결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대체작물 개발이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새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미 국

매년 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불법마약 남용에 사용해 불법마약류의 최대 소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마약류의 통제를 위해서도 연간 250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리적으로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남미와 가까운 데다 최근에는 동남아산 헤로인 유입이 늘어 이들 국가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밀매조직을 적발하고 UN을 통한 국제협력강화로 마약류공급억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마약류 중에서 코카인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85년이후 코카인을 농축시킨 형태인 크랙(Crack)이 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 주로 남미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이나 서부 카리브 해안지역으로 유입되던 것이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미국 동부와 동부카리브해안, 동부 바하마지역 등으로 밀반입 경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은 동남아산, 서남

※ '96. 12. 6호에 이어서 계속 연재.

아산, 멕시코산, 남미산의 순으로 특히 동남아산은 높은 순도와 수백 킬로그램씩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것이 특징으로 91년에는 전체 헤로인 압수량의 88%, 92년에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태국계 조직이 주로 밀수에 관여하고 나이지리아인등 아프리카인이 운반책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서남아산 헤로인은 10-20Kg씩 소량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파키스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란의 범죄조직들이 불법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서부 연안지역 도시 또한 멕시코산 헤로인 구입이 용이한 관계로 헤로인 남용 증가추세에 있다.

헤로인 투여방법도 AIDS 감염을 우려한 듯 기존의 주사방법에서 코흡입으로 변하고 있으며 흡연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흡연이나 코흡입이 가능한 신품종 'Smack' (헤로인의 속어)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1회 복용 비용이 10달러 수준으로 많은 중독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다. 또, 헤로인과 코카인을 혼용하는 'Speedball' 이 성행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크랙 사용자가 크랙사용 끝에 기분이 침체되는 효과를 중화하기 위해 헤로인으로 끝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외에 미국내 마리화나의 사용자는 일부 지역이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를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최근 25세 이하의 청소년들 층에서는 'Blunts' 라는 이름을 가진 담배 형태 대마의 남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와이와 서부연안지역에서 주로 남용되는 필로폰은 'ICE' 라 불리는데 다른 마약류에 비해 미국내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높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부근에서 암약하는 범죄조직이 제조물질을 밀반입해 밀조, 밀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최대의 마약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못하고 마약남용으로 인한 각종손실과 피해를 어느나라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남용의 폐해에 대처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UN의 마약통제 정책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미등 밀반입국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규제와 원조조치도 심심찮게 발표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마약의 저주' 를 퇴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부시 행정부' 에 이어 '클린턴 행정부' 역시 마약류의 생산과 경유국간의 국제협력 강화를 대마약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들어 중남미 국가에 대한 보다 많은 원조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마약류 경작 근절을 위한 자금지원의 증액을 의회에 요구, 올해 3억 5천만 불이었던 원조예산을 95년 4억 2천 780만 불로 증액했다.

또한 94년 대비 8%가 증가한 132억불의 95년 대마약예산을 단속기관의 운영이나 중독자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폭발적인 추세로 마약류 남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은 중독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당국은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확대와 그와 관련한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또,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마약류 생산국들이 마약류 식물의 재배와 합성을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록 이들 국가들이 마약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경제에 대해 대체작물재배를 위한 지원을 경제적, 물리적인 제재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생산국들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부시, 클린턴 행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단호해지고 있는데, 마약류의 생산국과 통과국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마약류통제에 완전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마약류거래와 생산통제에 있어 자국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해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원조를 중단하고 마약단속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원조삭감·주요 수출품에 대한 과세인상·외국차관 도입저지 등 경제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으며 국제기구로 부터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미 국무부가 95년에 의회에 제출한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INCSR)'를 통해 140여개국의 최근 주요마약류 생산실태 등을 발표하면서 미 국무부는 마약생산 또는 유통경로는 제공하는 마약우범국 31개국, 마약단속 비협조국 6개국, 지속적인 경제 대상국 3개국 등으로 지정, 발표하였다.

'마약우범국'은 아시아주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만, 태국, 베트남등 12개국이고, 중남미에 바하마, 벨리세,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타(공), 에쿠아도르, 과테말

라, 아이티, 자마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중동지역에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3개국,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를 포함하여 총 31개국이다.

'마약단속 비협조국'으로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지정했고, '경제 대상국'으로 리비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 3개국을 지정했다

캐나다

캐나다의 마약류 남용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의 남용이 원인이 되는 폭력사건이나 고속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범집행이나 의료적 조치의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벤쿠버, 터론토, 몬트리올 등 대도시권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는 헤로인의 중독자는 2만 8천명정도로 추정되고 그 중 몬트리올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로 헤로인을 밀수하는 조직은 주요생산국이나 중계국의 마약관련 범죄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다.

코카인은 캐나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중 하나이다. 순도도 높은 것이 많아 거리에서 압수한 것 가운데에도 순도 90%에서 98%까지의 것들이 드물지 않다. '크랙'의 남용도 늘어 저연령층이나 빈곤층 사이에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카인에 헤로인을 혼합하거나 L.S.D.를 혼입하기도 한다. 코카인 밀수는 콜롬비아 마약조직이 지배하고 있지만 1989년경부터

는 중국계범죄조직이나 자메이카인 범죄조직이 코카인 유통에 침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 건조대마, 대마수지, 액체대마를 도처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이중 대마수지가 가장 많이 남용되며 서남아시아가 주요 공급원이다. 건조대마는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코 등이 공급국이며 액체대마는 주로 자메이카에서 밀수된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코카인 제조량은 세계 제일로 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코카인의 85%를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코카인의 생산은 코카 재배의 중심지인 페루, 볼리비아에 이어 세번째이다. 코카인 공급조직들은 코카인의 생산에서 판매시장(미국, 유럽등)의 도매부문까지 관련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의 코카인 중간원료(Pasta de Coca, Base de Coca)는 페루나 볼리비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콜롬비아 남동부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코카인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 Guaviare 주에 23,900헥타르의 코카 재배지가 분포하여 주 재국 총 재배면적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코카인의 최대소비지인 미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코카인 밀수의 중심지가 되었다. 콜롬비아에는 오래 전부터 에메랄드 밀수가 이뤄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구축된 밀매망이 최근에는 대마에 이어 코카인을 밀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콜롬비아 정부의 단속이 엄격해 지면

서 대규모 공장들이 사라지고 2,000-3,000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밀조공장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 정제된 코카인은 코카인 카르텔(콜롬비아의 4대 코카인 카르텔-Medelin, Cali, North Atlantic, Bogota/Barranquilla Group)에 의해 북부에 있는 출하기지로 운반, 항공기나 선박 화물편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대량 밀매된다.

최대 코카인 조직인 '메델린 카르텔(Medelin Cartel)'은 미얀마에 근거를 둔 SURA와 지원협정을 맺어 헤로인 제조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일본내 범죄조직인 야쿠자와도 연대해 일본내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코카인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코카인 카르텔은 아마존 유역 하천을 통해 코카인을 브라질로 밀반입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을 여행자와 무역회사 등을 이용, 자금세탁기지로 삼고 있다

콜롬비아의 양귀비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 1990년 경찰당국이 확인한 재배면적이 약 1,000헥타르였는데 1994년에 20,270헥타르가 확인되어 최근 4년간 재배면적이 20배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마약청(DEA)의 정보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재 미얀마, 라오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양귀비 생산국으로 밝혀졌다.

양귀비재배 확산원인은 미국시장내 헤로인 수요가 1992년 소비인구 180만 명에서 1993년 23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여 생산량을 배가하고 있고, 콜롬비아 마약조직들의 상품 다변화 전략으로 양귀비를 전략상품화하고 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콜롬비아는 95년도에 대부분의 조직적인 마약 카르텔인 메데인카르텔, 칼리카르텔 등 마약공급 조직을 사법처리했으며 세계 압수량의 25%가 넘는 69톤의 코카식물(추정액 약10억달러)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국민 1,000명당 대마초 흡연 53명, 코카인 15명, 신경안정제 38명 등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마약퇴치운동에 정부예산의 약 5%(94년 19억6천불)를 투입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마약과의 전쟁' 수행 과정중 대통령 후보 4명, 법무장관 1명, 대법관 18명, 검찰총장 1명, 판사 15명 및 경찰관 3,383명이 희생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삼페르' 대통령은 마약거래의 국제화를 심각하게 인식, '마약의 국제적 분쟁에 대한 콜롬비아의 역할'이라는 대마약 단속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의 참여와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대마약 정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볼리비아]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인 볼리비아는 아직도 코카인사범이 주종을 이루며 필로폰 사범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코카재배억제를 위한 대체작물을 재배(50%정도 대체)하고 있으며 동시에 코카 재배지역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볼리비아에서 마약류남용은 정치와 사회의 부패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마약류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경찰, 관세청 등 범정부적인 기관상호간 협조와 미국, 페루 등 주변국과의 협정체결, 민간부문의 마약류예방 활동(33개 단체설립)을 통해 마약류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 유럽주

민주와 공산주의의 양체제 시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후유증, 크고 작은 국지전, 유럽통합이라는 정치 사회적 과제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유럽대륙에서는 최근 들어 마약류의 남용과 그와 관련된 범죄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헤로인, 코카인, 대마와 각성제의 압수가 늘고 있다.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대마가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헤로인, 코카인의 순으로 남용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유럽은 최근 마약밀매의 경유지로 이용되면서 남용도 늘고 있으며 밀수된 마약보다 자체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국제형사경찰기구(EUROPOL)에서는 마약밀매가 불법무기거래 조직이나 반정부단체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국경지역에 마약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서유럽과 동유럽에 관계없이 나름의 심각한 마약류 관련 문제를 안고

있으며 회원국의 상당수가 제약업이 발달한 국가 들인 EU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는 마약관련 문제 의 공동대책에 있기도 하다. UNDCP회의에서 유 럽대표들은 하나같이 UNDCP의 역할을 평가하 며 UN범죄예방위원회(UNCPCJ) 등과의 협력 을 통해 범죄적 측면에서의 접근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또, UNDCP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기여금의 증액을 바라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이 마약통제 사업에 참여 할 것을 촉구했다. 마약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적인 개발을 저해한다는 점을 감안 사회개발 정상회의가 마약공급 차단을 위한 지원을 토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법률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마약 통제에 수요측면의 차 단을 위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최근 러시아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남용자는 전체인구의 10%이상인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어 최근 10 년간 남용자수가 이전보다 2배이상 증가하고 있 다. 94년의 마약류관련범죄는 7만 4천명에 달해 89년의 2배이상, 85년의 4.5배에 달하고 있다.

마약류의 남용은 이전에는 극동, 불가강분지, 북코카서스 지역에 한정돼 있었으나 최근 러시아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약 물남용의 확산은 약물가격의 급등과 함께 사회전 반에 마약범죄가 생겨날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러 시아연방내에 2,000여개에 달하는 마약범죄조직

이 있고 이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각 지역과 구 소련의 여러 나라, 동유 럽에 걸친 범죄조직의 긴밀한 제휴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압수되는 약물의 1/3이 아제르바이잔이나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밀수된 것 이었다. 러시아 연방의 영역은 점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산 마약류의 통과지점으로 사용되고 있 는데 1993년 2월에는 이스라엘, 독일 당국과 협 조하에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콜롬비아로부터 러시아 경유로 서유럽에 밀반입 되려하는 1톤이상 의 코카인을 압수하기도 했다.

[프랑스]

최근 매년 마약류 사범의 밀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도 교묘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해 95년에 마약류남용과 거래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켰으며 마약류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자금세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 공해상에 서의 밀수와 원료물질 통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마약류 수요감축은 국민보건 문제와 함께 사회 통합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급억제를 위해 법집행 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관련법 집행은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과 AIDS확산 방지 와 같은 불법 수요감축정책으로 보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93년이후 유럽 각국의 행정준 비 미비 및 쉐켄조회시스템(SIS)의 기술적 문제 점을 들어 수차에 걸쳐 쉐켄조약 (* 쉐켄조약은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EU내 9개국간 국 경에서의 검문·검색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90년

6월 체결된 것)의 발효를 연기한데 이어 '95.9월 시라크 대통령은 유럽 각국간 마약 및 테러분자의 자유로운 왕래를 방지하기 위한 쉥겐조약의 발효 시기('96. 1월)를 또다시 연기했으며, 이 조약은 테러범과 마약의 유입을 우려한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 태도로 발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서유럽 마약유통의 중심지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현재 1만5천에서 2만 명 가량의 약물중독자가 있으며 이러한 마약류의 남용은 사회 경제적 소외집단, 특히 소수인종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코카인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헤로인 남용자는 향정신성 약품이나 알콜등을 병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은 마약 자체가 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되는 환경에 좌우된다고 보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 대책을 달리하는 입장을 마약류 단속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마 제품의 소량 거래(30g 이하)에 있어서는 경찰이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 수사와 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각국 정부의 비난을 의식, 최근 대마초 합법판매 한도량을 30g에서 5g으로 감소시켜 자국으로 몰리는 마약관광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의회는 마약중독자에 한해 헤로인을 무료 배급하는 법안을 추진이다.

[영 국]

영국에서 남용되는 마약류는 대마,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등이며 93년 한해만 대마를 60톤이상 압수했을 정도로 대마 밀매의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남용 확산으로 인해 영국내에서는 대마 흡입의 합법화 주장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캐나다와 같이 헤로인 중심에서 코카인의 남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필로폰의 남용이 확산일로에 있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예방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영국은 마약류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94년 10월부터 강력한 법집행과 교육 및 예방을 강조하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독 일]

독일의 마약류 상황은 최근 10년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 독일 국내에 있는 마약상습자는 대략 13만 명이 있다고 추정되고 1992년에는 1만5천명이 넘는 새로운 '강성마약(Hard Drug)'의 상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에서 문제의 중심이 되는 마약류는 헤로인이다. 아편계 마약중 유독 많이 남용되는 헤로인은 대체로 터키를 생산지나 중계지로 해서 밀수된 것이다. 코카인의 독일 유입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밀수는 주로 남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유럽에서의 공급은 유럽범죄조직에 의해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다.

[스위스]

스위스 당국에서는 총 700만 명의 국민중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마약류에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91년부터 국가차원의 통제계획이 시행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와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행위에 대항하는 노력을 배가해 체포자수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이를 소화해 낼 교도소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수요감축 노력의 하나로 마약 중독자와 치료센타를 증설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통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 오세아니아주

[호 주]

호주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산 마약류의 주요 시장이며 대마, 필로폰순으로 많이 남용된다. 대마는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로 1991년 이후 청소년층의 남용이 급증하고 있고, 자국의 실태조사 결과 저 연령층을 중심으로 32%의 국민이 남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헤로인의 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계 호주인들의 조직범죄 집단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마약범죄조직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계 조직범죄 집단이 밀매에 크게 침투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암페타민은 대부분 자체에

서 생산된 것으로 대마 다음으로 남용되며 '오토바이 폭주족' 폭력조직이 제조,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코카인은 대부분 콜롬비아 조직과 연계되어 밀수가 대형화되고 점차 증가하고 검거 건수 역시 1년사이 2-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소량의 헤로인이 항공화물을 이용해 밀수됐지만 최근에는 화물을 통한 밀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환각제인 MDMA, L.S.D.가 도시의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다. 호르몬 강화제(Anabolic Steroids)역시 과거에는 보디빌더나 대중선동가, 프로 스포츠맨등 특수 직업인 사이에서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 아마추어 스포츠맨, 10대 학생들에게 까지 남용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의 마약밀수와 탈세 등에 수사 주무 기관인 호주 경찰측은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함께 최근 돈 세탁 방지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 호주는 세계 마약 최대 생산지인 아시아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자금세정방지를 위한 수사관들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Harm Reduction 전략(마약사용에 따른 AIDS 및 세균감염등 위험요인의 감축전략)의 시행으로 정맥주사로 마약류를 투여하는 중독자의 AIDS 양성환자 발생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낮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자국 마약통계에 따르면 인구 330만 명중 남용자는 2만 여명 정도이며 특히 청소년층에 오남용

이 심각하다.

마약사범은 대마사범이 대부분으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며 코카인, 필로폰의 남용이 2%, 아편사범이 1% 정도이다. 코카인의 경우 남용자 수치는 미미하지만 90년도 이후 사범 검거율이 해마다 두배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분제인 필로폰의 경우, 뉴질랜드내에서 비밀리에 제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호주로부터의 소량 밀수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 아프리카주

아프리카는 헤로인, 대마, 향정신성물질의 주요 시장이면서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메사팔론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압수된 헤로인의 대부분은 동남아와 서남아산이며 가나인이나 나이지리아인 밀매조직에 의해 밀수되고 다양한 국적의 운반인이 신체나 화물속에 헤로인을 숨겨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탑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나이지리아인이 각국에서 운반책으로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코카인은 남미에서 민간항공기를 통해 아프리카로 공급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내는 물론 서유럽에까지 전해진다.

대마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의 하나이다. 이집트와 케냐 등지에서 양귀비재배가 보고되고 있으며 헤로인 남용추세와 함께 아시아산 헤로인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도산 메사팔론이 중, 남부 아프리카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남

아공화국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경유지 역할을 하던 동,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점차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필로폰 밀조공장이 동, 북부 아프리카에서 적발되고 대량의 필로폰이 아시아와 동구에서 유입되고 있어 아프리카가 마약류 관련 국제협력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마약류 공급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급격한 세계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의 목표속에 여러 분야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율화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외국을 드나들고 있으며 외국 방문객들의 국내 출입도 한결 자유로워 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국제범죄조직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약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가. 외국산 마약류 국내밀반입 실태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의 목표 속에 여러 분야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89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자율화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외국을 드나들고 있으며 외국 방문객들의 국내 출입도 한결 자유

로워 졌다.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국제조직범죄나 마약류 유입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외국과의 물적 교류는 물론 관광이나 업무 등으로 인적교류가 쉽고 자주 이뤄져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은 강한 자극을 받는 반면 공항에서의 검색이나 통제는 어려워지고 마약류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실태의 과거사를 살펴보면 60년대를 전후해 월남전과 함께 헤로인이나 대마초가 미군 등을 통해 밀반입 되어 일시 남용되기도 했으나 이내 그 모습을 감추었고 80년을 전후해 필로폰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밀조되어 일본으로 밀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의 밀수가 문제시 돼 왔다.

필로폰 주요생산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고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자 80년도 말 필로폰의 일본 밀수출이 차단되고 그 물량은 국내 남용으로 확산됐다. 이후 무차별적 남용 계층의 확산으로 사회 문제시되던 필로폰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 인식이 강화되고 정부의 단속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밀조공장들이 잇달아 적발돼 확산 추세는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마약 남용 계층의 잠재된 수요는 외국으로부터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불러들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 마약밀매조직에 의한 헤로인, 코카인의 밀반입과 중국교포를 통한 생아편의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카인' 과 '크랙' 은 최대 시장인 미국내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럽대륙 침투와 함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와 중국 운남성 지역 등에서 앵숙이 대규모로 경작되고 있는 점과 이들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면 여행객, 컨테이너, 어선 등을 이용한 아편의 밀반입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러한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은 9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밀반입사범은 '92년 33명이던 것이 '93년 52명, '94년 72명, '95년에는 83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필로폰의 경우 91년에 7건에 2.2kg을 압수한 반면 지난해인 95년에는 24건에 7.6kg을 압수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헤로인, 코카인도 마찬가지로 추세에 있다.

국내에 밀수되는 마약류는 주로 필로폰, 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대마초 등인데, 95년의 경우 필로폰은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지에서, 헤로인은 태국·미국에서, 생아편은 중국에서, 코카인은 미국, 대마초는 태국에서 밀반입 되는 등 우리나라를 경유지 또는 소비지로 하여 대부분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휴대품이나 신체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반입되고 있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현상은 90년 이후 국내에서의 필로폰 가격폭등과 국제밀매조직의 새로운 판로 개척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마약류의 남용현황을 사범별 분포비율로 살펴보면 필로폰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절반이상(51%)을 차지하며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 대마사범(28%), 아편등 마약사범(21%)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91년부터 감소하다가 '93년에 전년대비 96.9% 급증한 후 '9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가 '95년에는 전년대비 58.8%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편등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93년에는 전년대비 254.4% 크게 증가하여 절정을 이룬 후 다시 감소추세를 돌아서 '95년에는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고, 대마사범은 '93년에 전년대비 43.2%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95년까지 별다른 증감변화를 보이지 않고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사범은 '91년이래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95년에는 5,418명을 검거하여 '94년 4,555명에 비해 18.9% 증가 추세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마약류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향락추구 심리와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마약류 밀조기술의 보급확대 및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증가,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 성적 흥분제 등 사술적 유혹에 의한 밀매로 사용계층이 확대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국내마약시장을 노리는 국제범죄조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마약의 생산지인 중국이

나 동남아 등지에서 소비지인 일본으로 통하는 밀매 루트의 경유지로 이용되거나 소비지가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영화나 말로만 듣던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같은 외국의 거대 범죄조직과 관련된 밀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일본 야쿠자가 개입돼 중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우리나라를 경유, 일본에 반입하려다 부산지검에 의해 검거된 사례는 중국의 제조책, 한국의 운반책, 일본의 판매책이 결합된 경우로 일본 야쿠자조직이 국내 필로폰 밀매단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을 사실로 입증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범당국을 긴장케 하였다. 중국 현지 필로폰 밀조단과 연계한 국내 밀매단이 90년대 들어 가끔 적발되기는 했으나, 야쿠자가 관련된 조직이 구속되기는 처음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가와구치마사루'는 일본 국적을 가진 한국인 2세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오오사카 지역본부 조직원들과 손잡고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거 밀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95년 2월 鄭씨로만 알려진 중국 현지의 필로폰 밀조책을 야쿠자조직으로부터 소개받은 뒤 그 해 4월 鄭씨로부터 6백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400g을 넣은 비밀봉지를 다리에 테이프를 붙여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고, 그 이외에도 1년사이에 여섯 차례나 중국을 오가며 모두 필로폰 2.75kg을 반입해 이중 1.5kg을 야쿠자에 건네주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필로폰 제조전문가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중국 현지에 밀조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 조선족의 노동력을 활용, '제품'을 생산한 뒤 일본의 야쿠자조직과 손잡고 일본 및 국내시장을 공략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은 필로폰 제조자금을 오락실 투자 명목이나 中國産 참깨나 뱀등의 수입명목으로 국내에서 끌려들어, 나아가 '밀조책-밀수책-판매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 분담한 뒤 선박 편으로 포항 등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거나 일본 나고야 등으로 필로폰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인 95년 9월에는 미얀마의 마약왕 '쿤사'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있어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헤로인밀매조직을 이끌고 있는 미얀마의 '쿤사'로부터 시가 1천4백억원 상당의 헤로인 3.5kg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하려던 한국인 '쿤사' 조직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거된 것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쿤사조직원尹모씨(38, 보석가공업)와 국내 판매책徐모씨(31, 건설업)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소지·운반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尹씨 등은 지난 95년 8월 서울 광진구 W호텔 커피숍에서 태국인 '미스터 조'와 만나 운반비 3천만 원을 주고 헤로인 3.5kg을 넘겨받은 뒤 마산 R호텔에 투숙, 판매경로를 물색하다 경찰에 검거됐었다.

그 외에도 대만의 거대 폭력조직인 '죽련방'(竹聯)이 국내에 침투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95년 7월 시가 22억원대의 臺灣産 필로폰 밀매사건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외국 거

대폭력조직의 국내마약시장 침투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94년 12월경 李○영등 국내 공급책 4명은 대만폭력조직 '죽련방'의 하부조직원인 화교 창웬쉬(가명)로부터 '품질 좋은 필로폰을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만의 한 호텔에서 만나 샘플을 확인한 뒤 95년 2~4월경 서울에서 2차례 1.5kg을 9천만원에 사들였다. '죽련방'은 지난 56년 결성돼 조직원이 1천명이 넘는 대만 최대폭력조직으로 해외는 물론 한국에도 지부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급총책 李○영은 모 D기업 사주의 손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대를 중퇴한 뒤 필로폰 밀매에 뛰어들어 이복형 李○윤씨와 함께 필로폰을 팔아 번 돈으로 서울 시내 최고급호텔에서 기거하는 등 초호화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일본, 대만 등지의 범죄조직이나 동남아시아의 마약밀매조직의 국내침투, 러시아 마피아의 한국 진출설 등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어 수많은 국제 범죄집단과 국내 범죄자들이 우리의 '열린 門'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북한의 마약밀거래개입

한편, 북한이 마약밀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외국 주재 공관원들이 연루된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지난 95년 4월 중국에서 2백억 원대의 필로폰을 밀조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6명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특히 중국에서 북한공관원과 접촉,

독일에서 필로폰 원료를 북한을 통해 밀반입한 뒤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량 제조, 일본 야쿠자조직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 제조책 李씨는 94년 8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 고려호텔에서 운반, 자금책인 鄭·金·李씨등 3명과 만나 필로폰을 밀조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 판매하기로 하고 95년 1월 중순 요령성 반금시에 있는 제조책 李씨의 현지처 金○애씨(27)의 집 창고에서 중국산 염산에페드린을 원료로 필로폰 6.3kg을 제조했다. 운반책 金씨등은 제조한 필로폰을 수입품에 숨겨 韓·中 정기 컨테이너선인 조양랜드호편으로 95년 3월중순경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수사결과 필로폰 제조원료인 독일산 염산에페드린 4백kg을 북한을 통해 중국으로 반입한 뒤 필로폰 3백kg을 제조해 일본 야쿠자 조직에 판매하려다 북한내부사정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밀조총책 李씨는 94년 4월 북한 영사관 직원을 만나 獨逸産 염산에페드린 구입대금의 일부인 미화 2만 달러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의 마약밀매설을 처음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마약밀매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마약수사관계자는 올해 6월 경주에서 열린 국제마약협력회의에서 北韓産 마약류가 국경지대를 통해 밀반입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단속을 대폭 강화하였고, 최근 아프가니스탄등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헤로인과 북한산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는 북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에

서 생산되는 아편과 헤로인의 중간 경유지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는 수단의 하나로 보여지지만 21세기 통일 국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우리의 마약류범죄대책 및 국제협력현황

앞서 살펴본 대로 마약류의 통제를 위한 많은 국제조직과 회의, 협약 등에 우리나라 역시 회원국 또는 체약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협력의 창구와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개발, 활용하면서 마약류와 관련한 각종 국제 협력회의에 실질적인 참여와 UN주도의 각종 행사나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 활동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UN마약위원회가 90년 특별총회를 통해 1991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마약류 퇴치와 관련해 각국이 부여하고 있는 정치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포한 'UN 마약류 퇴치 10개년 계획' 과 관련해 같은 기간동안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추진목표와 세부계획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1단계는 91년에서 93년까지 마약류 사범을 제압하는 시기로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전

문적 수사체제와 기법을 정착시키고 공항과 항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대국민홍보 활동과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일명 '88년 UN협약')에 가입하고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HONLEA)회의참석, 국제협력회의개최, UN 麻藥親善大使제도 등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다.

2단계인 94년에서 96년까지는 '마약류 안전지역(Drug-free Korea)' 확보의 기간으로 마약류 정보와 전산체제를 정착시키고 아·태지역 국제협력 활동을 주도하며 전문치료 센터의 개원으로 중독자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완벽한 체제를 갖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3단계는 97년부터 99년까지로 마약류퇴치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이 기간동안 각국의 마약류퇴치 계획수립과 추진에 자문 및 단속활동을 지도하고 외국 수사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마약류 감정 Workshop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인 2000년은 '마약류 없는 지구'의 해(Drug-free Earth)로 정해 21세기 종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UN이 채택한 '61년 단일협약', '71년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며, 88년 8월 이미 범죄인인도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고 호주 캐나다 등 주변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또, 91년 3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해 UN 주도의 각종 협

약에 가입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마약류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통제를 위해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개정했고, 그 외에 자금세탁 예방, 자산동결, 마약 밀거래 방지를 위해 의심스런 거래의 신고와 '統制配達技法'(Controlled Delivery)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특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95년 12월 6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특례법은 마약류의 수입, 수출,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범죄의 수사를 위해 충분한 감시체제 확보에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범죄 혐의자의 입국을 허용하여 관련 범죄자의 색출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88 UN협약'에서 국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통제배달기법의 국내 실시를 합법화하고 있다. 또, 마약류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위한 조항들도 제시되어 있는데 범죄로부터 직접 발생한 불법수익 이외에도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이나 부합재산등도 몰수 대상으로 확대하고 확정 판결에 의해 몰수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가처분 등과 같이 대상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UN마약위원회회의와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 등에 참석,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 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UN 마약통제본부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정부의 마약류단속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249개 경찰관서의 1,052명의 마약수사전담요원을 활용 범죄동향과 첩보를 분석하여 필로폰의 밀매 및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지역별 계절별로 기획수사를 수시 실시하며, 매년 5-7월에는 양귀비 대마초 불법재배 일제단속, 매년 6월 투약자 자수기간운영, 마약수사교육을 통한 마약수사력의 강화와 함께 마약수사를 위한 수사조직확대와 인력증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광역화되어 가는 마약류범죄의 대비해 국내외의 마약류범죄 관련자료와 점조직화된 마약류 사범이나 조직정보, 상습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미검거자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전산화하여 일선 수사요원들이 직접 전산시스템으로 자료를 열람 검색하고, 상호간 정보교환과 업무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마쳐 국내외 관련 정보수집 분석과 함께 짜임새 있는 공조수사의 틀을 다지고 있다.

5. 맺으며

미국의 약물정책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다. 그야말로 나라가 생겨난 이래 계속해서 앓아 오고 있는 병이라고 해야 할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대책이나 관련 예산 역시 갈수록 고도화되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약물중독 그 자체의 폐해나 관련 범죄율의 증가, 마약 밀거래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검은 돈'에 의한 경제 현상의 왜곡 등 범죄조직이나 제반 사회문제들과 악순환의 고리를 잇고 있는 마약 문제는 '미국이 망한다면 癡藥 때문'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나,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약문제는 여전히 후보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단 마약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전반에 공공연한 문제로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는 '戰爭'으로도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웬만한 국가의 한해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자금과 군사력을 동원해도 근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이라는 것을 멀리 아편에 의해 무너진 청나라를 돌아 볼 것도 없이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마약류 남용의 국제적인 추세는 생산국·경유국·소비국의 구별이 약해지고 마약류 남용인구도 늘고 있으며, 마약류 불법거래조직은 기존의 범죄조직과 결합해 더욱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등지에 새로운 밀거래 루트를 만들고 경유지로 이용하면서 이들 국가의 사회와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동서유럽간 국경개방을 이용, '발칸 루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동구, 발틱국가, 동부 지중해 등에 걸친 광범위한 육상 및 해상 밀거래망을 구축되면서 마약류의 밀거래에 무기밀수, 테러, 조직범죄, 반란단체들이 개입하고 있어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류 남용과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국가간이나 지역간의 더욱 강화된 협력과 국제 마약류통제협약의 준수, 자금세정 행위방지를 위한 입법화 추진, 공해상의 밀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 마련,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각종 화학물질의 통제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자료와 통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최근 일부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의료용 목적의 마약사용 합법화반대, 국제협력의 조정기구로서의 'UN마약통제본부'의 역할 강화 등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협력을 어렵게 하는 국내외적인 장애요인 역시 없지 않다. 마약류의 주요 생산국은 마약류와 관련한 불법수익이 자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대외적으로는 단속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UN의 근본적인 지원대책 없이 근절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마약재배지가 주로 국지전등의 분쟁지역이나 국경부근, 오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각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레바논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지역은 정치불안과 내전 등으로 마약류의 생산이나 밀매의 단속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한 경우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통제마약류를 당국의 묵인 하에 생산, 수출하거나 밀매를 조장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마약류의 수요계층이 다

양화되고 늘어남에 따라 통제정책도 종래의 공급 통제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억제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UN은 수요감축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관련지역 기구에 예방, 치료, 연구 및 사회재복귀에 중점을 두는 종합적인 전략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지 국가는 소비지 국가들이 수요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대체발전전략의 확대를 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경유지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유럽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마약류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주변국들과의 각종 협정 체결과 수사공조를 통해 국제협력의 틀을 다지고 있다. 주변국들의 사례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듯이 마약류문제에 있어 '安生地帶'란 없다. 세계 각국은 생산국으로 소비국으로 또, 경유국으로 이용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주변국가의 마약류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범죄조직들이 허술한 국가간의 경계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UN을 중심으로한 국가간 지역간 모임과 정보교류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는 '麻藥類 退治'와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 국제간 협력방안의 하나인 統制配達技法의 활용을 통한 국가간, 관계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고 마약류거래에서 파생되는 불법수익몰수제도의 채택과 마약류단속기관에 대한 활동을 적극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서의 마약류 수요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

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늘이고 보호제도를 활성화 하며, 민간차원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예방 노력을 병행하면서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국제협약의 체결과 준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정보교환과 공조체제의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력등 마약밀매 조직에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매력있는 시장이다. 지금까지의 단속과 관리는 국제회의석상에서 '한국은 마약 단속에 있어 성공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얻는 수준에 있지만 그러나, 주변국들의 안전 없는 '나홀로 안전'은 폭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폭발물을 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미국 일본의 주변국들이 이미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정한 정세를 틈타 새로운 마약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고유 전통의 가치가 위협받고 쏟아지는 외국의 문화와 사회악을 체가 아닌 스펀지로 받아들이면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에도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키는 '안전판'을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끝>